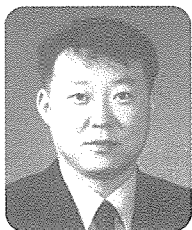


2006년 종돈 및 인공수정업계 결산과 전망



김 성 수 등록팀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1. 머리말

병술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농업 시장 개방 압력을 받고 있어 더욱 더 어려움을 겪었다.

양돈업계는 돈가가 전년도에 이어 9월말까지 고공 행진으로 이어졌으나 10월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고, 농가의 속사정은 부익부 빈익빈 형태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종돈업체들도 종돈 부족현상이 나타나 시설 확장을 통해 모든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모성질병 발생 억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멈추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질병과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AI업계는 정액의 위생과 AI센터 방역에 집중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다. 그동안 양적에서 질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축산연구소와 함께 우수정액등처리업인증제를 준비, 양돈농가가 원하는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 HACCP인증을 받은 업체가 증가하는 등 양돈농가에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2. 종돈개량 사업

올해 종돈업계를 위해 추진한 사업 내용을 간단히 나열해 보면 4월에 한·덴 국제세미나 및 검정보고회를 유성에서 개최하여 종돈장과 관련 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덴마크의 종돈개량'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개정을 통해 돼지브루셀라, PRRS가 추

가되었고, 질병검사 비용 중 농가부담이 올해부터 30%를 적용받고 매년 10%씩 증가하여 2013년에 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9월말에는 중국북경VIV축산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송강INT 협조를 얻어 협회 브로슈어 300부, 9개 종돈장의 카탈로그 300부를 본회 직원이 한국 종돈의 우수성을 홍보 및 바이어 등과 종돈 수출 상담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질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정부의 일부 지원을 받아 종돈수출협의회와 연계하여 종돈수출을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세미나를 12월초에 추진할 계획이다.

AI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용돈의 현황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다. AI업계에서도 돼지 액상 정액 수출과 인공수정기술 및 인공수정 시스템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기 위하여 한·태 돼지AI교류 기술세미나를 12월초에 개최 할 예정이다.

'06년 최소시장접근(MMA)물량(1,850두)은 10월말 현재 54종돈장에서 1,433두를 수입하고 12월까지 12개종돈장에서 417두가 수입될 예정이다. 종돈업체 현황은 135개 종돈장에서 실질적으로 종돈업에 종사하는 101개 업체가 정상적 영업을 하고 있으며, 34개 업체 중 등록사업에 일부 참여 업체는 18개이며, 주변 환경의 변화, 소모성질병, 후보돈 자체소비, 휴업, 폐업예정 등 때문에 참여 못하는 업체는 16개이다. GGP종돈장은 17개 업체이며, 계열화 업체인 번식농장(GP)은 60개로 전년도 GGP 7개, GP 35개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이는 종돈장의 전문화 및 계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종돈개량사업과 AI업계 현황을 보면

가. 종돈개량사업

1) 종돈업체 현황

(2006년 10월 현재)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종돈장수	19	10	10	23	8	16	22	21	6	135

2) 등록 및 검정사업

가) 순종돈

(2006년 10월말 현재)

구 분	등기	협통1	협통2	고등	이등	전체비율	
등록사업	계획	15,000	21,000	25,000	8,000	20,000	100%
	실적	15,112	22,705	17,671	6,792	20,554	93%

나) 번식용씨돼지

(2006년 10월말 현재)

구 분	등기	협통1	협통2	이등	전체비율	
등록사업	계획	54,000	101,000	21,000	118,000	100%
	실적	55,323	109,560	30,708	125,097	109%

다) 검정

검정참여 종돈장은 35개 업체이며, 이들중에 입회검정 30개, 자가검정 9개로(중복4개), 입회검정 35,000두 계획 22,785두(65%)실적, 자가검정 25,000두 계획 18,363두(73%) 실적으로 전체 계획대비 실적은 69%를 나타냄

'06년 등록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브랜드사업과 연계되어 종돈통일을 하기 위해 종돈분양 시 혈통서를 철저히 발급하여 실적이 110%정도 달성할 것이며, 검정사업은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이뤄지고 있는 원인은 ① 종돈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검정을 받지 않고 조기 분양. ② 계획수립을 무리하게 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③ 수택지 검정 기피현상 등으로 검정 참여율이 낮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 AI업계 현황

54개 AI센터가 있으며 경기 7개, 강원 2개, 충북 4개, 충남 12개, 전북 6개, 전남 4개, 경북 7개, 경남 7개 제주 2개, 기타 3개로 나타나고 있다. 용돈 보유두수는 3,300여두이고, AI센터 평균 62두정도 보유하며, 30두이하인 AI센터는 14개, 30~50두 10개, 50~100두 22개, 100두 이상은 8개 업체로 분포되어 있다. 종모돈 1두당 월평균 45두분을 판매하고 있고, 국내 양돈장에서 종부시 80%가 액상정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후보돈의 증가로 인해 AI용 액상정액 공급물량도 20% 이상 증가했다.

3. 전 망

'07년에도 신규종돈장 공사(5곳)가 완공 예정이며, 종돈장 자체 규모가 커져 순종 및 F1모돈의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올해보다는 전체 모돈의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정사업도 '06년 암·수 성비를 보면 68 : 32로 수태지검정 참여가 낮아, 앞으로 검정사업 확대 측면으로 볼 때 순종 미거세 출하돈에 대한 지원 없이는 검정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또한 양돈농가의 모돈수가 증가하여 정액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양돈농가도 AI센터에 용돈의 유전적 형질별로 정액을 요청하고 있어 종모돈의 보유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정액 제조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료 가격은 20~30% 인상한다고 하니 더욱 업계의 어



▲ '07년도에는 신규 종돈장이 완공되고 종돈장의 규모도 확대되어 올해보다 전체 모돈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려움이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된 잉여 유전자원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형 종돈을 만드는데 뜻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어 종돈업계도 '07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돈장간의 혈연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종돈장간에 유전자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둘째, 핵돈군 조성에 필요한 종돈장과 AI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매년 연초와 연말에 계획과 결과를 보면, 계획은 있는데 실천은 없어 안타까운 현실에 실망하곤 한다. 하지만 '07년은 다시 한 번 종돈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워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정부와 관련기관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종돈업계 스스로의 자성의 노력도 필요하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내가 키운 건강돼지 내가 지킨 가족건강